KÓKKOS 3
MAR 2024 VOL. 263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2024년 새내기들 입니다. 사랑해요!" 성서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생 학우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손하트로 인사한다. 왼쪽부터 이호준(컴소), 강민주(간호), 한다인(영보), 강태린(사복), 조세진(성서) [관련기사 3면]

신입생충원율 올해도 100%

「학과, 입시코디」가 앞장선 입시 전략 성공적

강우정 전 총장, “ ‘좋은 대학’은 살아남는다”

우리 대학은 29일 최종 마감한 2024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2020년 신입생 1명이 마감 직후 입학을 포기하는 바람에 신입생충원율 99.55%를 기록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연속 100%를 이루어 냈다.

2024년 신입생은 247명이며, 편입생은 26명으로 모두 273명의 새로운 성서인이 선발되었다. 어려운 입시 전쟁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 시도한 ‘입시코디 제도’ 아래에서 학과가 입시의 전면에 나선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서학과 교수들이 하나가 되어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회를 갖고 1년 내내 발품을 판 것이 학과를 살렸다. 많은 대학의 신학과는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편입생은 39명 모집에 22명이 입학하여 충원율은 56.4%에 그쳤다. 정원외 4명을 포함하면 편입생은 총 26명이다. 편입생 유치는 이제 새로운 입시 전쟁터가 되고 있다. 대학의 인지도를 따라 학생들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추가모집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모집인원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21학년도 23명을 추가모집하였고 2022학년도에는 19명, 2023학년도 12명으로 줄어 들었고 올해는 성서학과만 6명을 추가 모집하였다. 6명 추가모집에 8명이 지원하였으며 최초합격자 6명이 모두 등록하여 추가모집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

최육열 본부장(입학·학업지속지원 본부)은 “우리 대학 입시에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우리 대학의 평형수인 성서학과 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정 전 총장은 “그동안 입시를 위해 수고한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대학’은 살아남는다”고 구성원들을 격려하였다.

100%

미니설교

인자하신 하나님 (시편 107 편)

김창현 목사(교목실)

시편은 ' 성경 전체의 축소판 ' 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07 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다 . 시편 107 편은 감사의 고백 (1 절) 을 시작으로 본문 4 절부터 32 절까지 삶의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4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 특별히 기자는 4 가지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공통으로 말하고 있다 .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고난에 처해있던 그들은 구원받았다 . 우리 삶도 동일하다 . 비록 각자 다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가 있는 자 (43 절) 의 모습이다 . 24-1 학기가 시작된다 .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누는 새 학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

최정권 총장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전진하라"

2024 년 1 학기 개강 뜨거운 열기 속 힘차게 출발

최정권 총장이 학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

2024년도 1학기 개강예배가 4일 낮 12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최정권 신임 총장은 취임 이후 개강예배 첫 권면을 통해 두 가지를 권면하였다.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상존한다. 두려움과 불안은 쌍둥이이지만 그러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새기면 두려움은 물러나게 된다. 둘째, 인내해야 한다.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야 하며 이는 시간이 요구된다. 대학 교육의 성공은 강의실에서 일어난다. 현재의 지식 바탕이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야 한다. 말씀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를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행하며 인도해 줄 것"이라고 권면했다.

이에 앞서 강규성 교목실장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의 말씀에서 "올해는 '봉사의 해'로 서로 봉사하고 섬김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서로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사명이다. 선한 청지기로 진실과 성실함을 더하고 각 사람은 은사대로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삶 속에 존중과 배려, 수용과 인정, 감사와 격려, 관심과 동행의 단어가 자주 사용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공동체 되자"고 말하였다.

채경훈 총학회장은 "새 학기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부하는 학문과 기술, 말과 행동이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24 학년도 FT 3 월 11~13 일 교내에서 갖는다

문화공연 공동체 훈련과 선택 특강 등 준비

2024학년도 봉사의 해를 맞아 성서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갈 FT(Faith Traing)가 3월 11~13일까지 사흘간 교내에서 일립교육과(과장 박성환) 주최로 진행된다. 주제는 '우리 함께 THE 봉사'(The hours per everyone)이며 주제 성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이다.

11일(월), 저녁 6시 대학원 원우를 대상으로 이재서(前 총신대학교 총장) 세계밀알연합 총장의 특강과 함께 막이 오른다. 학부생들은 12일(화), 오전 박에스더(現 KBS) 기자가 기독교적 봉사자의 행함에 관한 내용을 강연하며 사회성 함양을 위한 공동체 통합이 Ⅰ·Ⅱ 프로그램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문화공연은 'Calling Choir'(SBS 싱포골드 TOP 10)와 'PEtER'(2021년 4CHRIST AWWARDS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상)가 영성과 감성의 선율을 선사하며 이병모(경기북부청소년 자립지원관)관장의 말씀 집회도 준비되고 있다.

13일(수), 윤현묵(64회 미니휴먼다큐 출연) 동문이 '공감'에 관해, 김혜민 (YTN라디오)PD가 '봉사'에 대하여, 이유미(소원교회) 사모가 '연애, 결혼'을 내용으로 특강이 진행되는데 학우들은 자신의 관심 주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학우에게는 점심 도시락이 제공된다.

첨단학과 'AI 융합학부' 인가 재 도전

인공지능학과 (AI) 등 3 개 전공 95 명

첨단학과설치추진단(단장 강규성)은 지난 2월 8일 'AI융합학부'(인공지능전공, AI휴먼서비스 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신설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신설 'AI융합학부'의 정원은 95명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중 45명을 순증 신청하고, 기존학과 조정으로 15명(성서 7명, 사복 4명, 영보 4명 감축), 편입여석 5명을 활용하여 도합 65명과 기존 컴소 30명(5명 감축)을 'AI융합학부'에 편입시켜 정원 95명 규모의 학부를 신설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첨단학과 신설에 도전하였으나 신설 조건인 교원확보율 100%(기준 52명)를 미충족하여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지난 9월 1일 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한 상태라서 인가 가능성이 충분하다. 'AI융합학부'가 인가되면 우리 대학 입학정원은 기존 223명에서 45명 늘어난 268명이 된다.

첨단학과추진단은 교육부에 'AI융합학부'를 신청하며 "우리 대학의 강점인 영성·인성 교육에 기반한 휴먼서비스 중심 교육을 적극 추구하겠다"고 적시하였다. "AI시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휴먼서비스를 융합, 사회에 필요한 헬스케어·복지 등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적화된 인공지능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첨단학과 신청은 우리 대학이 개교 이래 일관해 온 밀알 정신을 기반으로 바른 인성, 전문성, 실천성을 겸비한 복음전도자 양성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첨단학과설치추진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 강규성 부총장
▲ 자문 송희경(컴소 겸임) 교수
▲ 실무추진위원장 최선희(사복) 교수
▲ 총괄위원 임지영(컴소) 교수
▲ 위원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 위원 김병수 학업지속지원팀장(간사 겸임)

2024 년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학우의 전인격적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강우정 총장이 학부모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2024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24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강규성 교목실장이 '각 사람을 가르침은'(골1:28~29) 제목으로 "우리 대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학우의 전인격적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단 한 명의 학우도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를 섬기고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도 흠모하는 인재로 반드시 탈바꿈시켜 가겠다"고 말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우리 대학의 교육 만족도 지표에 의하면 산업체 만족도가 제일 높다. 우리 졸업자를 채용한 고용주의 85%가 업무 역량과 인격, 심성 등에서 만족을 답했다며 이는 우리 학우들의 질적 향상이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말하였다. 최정권 신임 총장이 학부모에게 인사하였으며 주요 보직자, 학과장의 소개가 이어졌다. 권경만 전략기획실장이 우리 대학 설립이념과 주요 학사 프로그램 및 달성한 교육적 성과와 장점 등을 안내했다. 함태영 목사(함승민 학우 아버지)가 주님의 거룩한 인재로 세워달라며 기도하였다.

학부모들은 이후 전공 교수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학과 특징과 취업 현황 및 주요 일정, 자격증 취득 등이 설명되었고 학부모들은 장학금 여부, 채플 참석, 동아리 현황, 학교생활 등을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간호학과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과 교수들의 열정을 직접 접한 긍정적인 자리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간담회는 1부, 예배와 2부, 학교 소개 및 학과별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입생 학부모 48가정 66명이 참석했다.

2024 학년도 51 개 위원회 위원 임명

새 교무위원에 박태수 , 이성아 교수

박태수 교수

이성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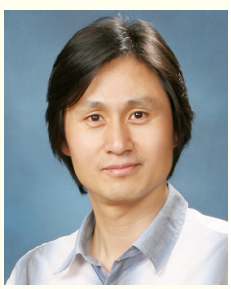
2024년도 교내 주요 학사 정책과 행정 방향을 이끌어 갈 51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발표되었다.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신학 영역을 다루게 될 신학위원회에는 최정권 총장이 위원장이며 강우정 법인 이사장 등 6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대학의 비전 수립과 주요 핵심 현안, 발전 전략을 논의해 갈 교무위원회와 대학발전위원회는 최정권 총장 등 13명 위원이 참여한다. 지난 학년도 말 퇴임한 강우정 총장과 유정선 교수의 후임 교무위원으로 당연직 최정권 총장 외에 박태수, 이성아 교수가 임명되었다.

임명된 51개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원회 생략)

최정권 총장 ▲신학 ▲교무▲대학발전 ▲대학혁신 ▲교육과정정책자문
박종걸 목사(경성교회) ▲대학평의원회
강규성 부총장 ▲등록금심의 ▲대학자체평가기획자문 ▲기금운용심의회 ▲산학협력단운영 ▲대학혁신운영 ▲교원인사 ▲공간관리
조혜경 대학원장 ▲대학원 ▲일반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운영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운영 ▲특수대학원운영
최은희 학사 부총장 ▲교육혁신운영 ▲교원양성 ▲학사관리 ▲교육과정 ▲온라인강좌 ▲일립교육 ▲장학및학생복지지도 ▲학술연구심의 ▲졸업시험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대학소통 ▲대학혁신실무자 ▲정보보안심사
김중완 행정본부장 ▲직원인사▲안전관리 ▲연구실안전관리
최육열 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장 ▲대학입학전형관리 ▲선행학습영향평가
임지영 교수 ▲대학혁신자체평가
이성아 교수 ▲위기학생안전망운영 ▲비교과운영
장인순 교수 ▲성과관리
한진호 교수 ▲기타교육운영 ▲지역사회임팩트센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김정원(영보) 교수 ▲기관생명윤리 ▲도서관운영
김성경 교수 ▲장애학생지원
김승옥 교수 ▲평생교육원운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운영
배진형 교수 ▲인권센터
윤혜진 센터장 ▲교수학습센터운영
최사랑 교수 ▲진로심리상담센터
문지예 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
※ 대학자체평가: 추후 임명

최선희 (사복) 교수 정년보장 교원 승인

2024 년도 제 1 차 이사회


최선희 교수 (사회복지학과)

2024년 제1차 이사회(이사장 반종원)가 20일 오후 밀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최선희(사복) 교수의 정년보장 교원 임용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최선희 교수는 1999년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겸하면서 월계를 전국 최상위 복지관이 되도록 초석을 다졌다. 기획실장과 전공교육부장을 비롯해 특성화지원사업단장,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총괄하며 학교 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밀알관 신축, 일립관 증축 위원장을 맡아 이를 완공시키는 등 다수의 공적으로 학교 발전에 헌신을 보여 주었다.

이사회는 또 김은호, 김창원 이사와 김원태 감사의 연임을 가결하였으며 학교가 제출한 2023년 추경 11억 6천만과 2024년 예산안(181억 6천 7백만 원)에 대해 이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교내 학생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위한 정관 변경과 수탁기관 추경도 함께 승인하였다.

2023 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학부 69 회 , 대학원 36 회

김은호 목사 '하나님의 굳건한 동행 복음의 참된 가치 실현'

졸업생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강우정 총장 .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학부 69회, 대학원 36회)가 20일 오전 로고스홀에서 졸업예배와 학위수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203명 학우(성서29, 사복 47, 영보 39, 컴소 31, 간호 57명)가 학사, 53명의 원우(일반신학 8, 간호학 5, 목회학 20, 사회복지 6, 보육학 14명)가 석사학위를 받았다. 강우정 총장은 졸업자에게 일일이 학위증을 수여하며 기쁨을 나눴고 학과 교수들도 제자에게 따뜻한 허그와 악수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나노 디그리(학과별로 실무역량 강화 목적의 4개 과정)를 마친 53명에게도 인증서가 수여되었다.

영예의 총장상은 이민경(영보)학우 등 5명, 이사장상 오동영(사복), 총동문회장상 지다은(영보), 스룹바벨상 나단, 최주현(성서), 에스라상 박준영(성서), 밀알인재상은 이준기(사복) 등 13명이었는데 그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이준기, 오동영(이상 사복)학우는 밀알영웅으로 추대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학원 총장상 박은주(일반대학원 간호), 대학원장상 구재서(신학대학원) 등 9명의 원우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김은호 목사(27회, 연지교회)가 '확실한 동행'(시23:1~6)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안고 길을 나선다. 앞길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성서적 세계관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모두는 복음의 인재들이다. 졸업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하나님의 굳건한 동행을 믿고 복음의 참된 가치 실현에 도전해달라"고 말하였다.

강우정 총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전도자로 불러 4년간 교육을 받았다. 크리스찬에게 착한 행실은 전도이다. 말씀과 기도, 섬김을 실천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 달라고 권면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졸업식 권면에 이어 짤막하게 이임사를 전했다. (이임사 전문 9면)

조윤경(영보) 교수가 졸업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 반종원 법인이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뜻한 가슴과 복음으로 세상을 품어 달라며 격려, 윤두태(25회, 가성교회 담임) 총동문회장이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난 후배를 맞이한다며 축하해 주었다.

학위수여식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총장상	▲이민경(영유아보육학과) ▲문진우(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류기환(간호학과) ▲조민영(성서학과) ▲강민주(사회복지학과)
이사장상	▲오동영(사회복지학과)
총동문회장상	▲지다은(영유아보육학과)
선교회이사장상	▲맹시연(영유아보육학과)
스룹바벨상	▲나단 ▲최주현(성서학과)
에스라상	▲박준영(성서학과)
밀알영웅상	▲이준기 ▲오동영(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총장상	▲박은주(일반대학원-간호)
대학원장상	▲이민우(사회복지대학원) ▲정윤정(보육대학원), ▲최민국(일반대학원 -신학) ▲구재서(신학대학원)
이사장상	▲이선경(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상	▲이민우(사회복지대학원) ▲김슬기(보육대학원)
선교회이사장상	▲홍지광(신학대학원)

성서대학교회 목사 이 · 취임식

이임 최정권 목사 , 취임 반세호 목사

"한걸음에 달려올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취임사를 전하고 있는 반세호 목사 .

성서대학교회 이·취임 감사예배가 18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한국성서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 목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마16:18)에서 "성서대학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어야 한다"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둘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교회. 셋째,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서대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세워갈 때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반세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오니 나의 기쁨이다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제 가슴을 뛰게 하였다. 이 교회가 참 행복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소중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고백한다. 언제라도 성도 여러분이 한걸음에 달려올 어머니 품 같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함께 나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하였다.

이임하는 최정권 목사는 성서대학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며 이 모든것을 가능케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강우정 총장은 "반세호 목사님은 정통 성서맨이라며 평생 가난한 마음과 영혼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물질적인 풍요를 경계하고 가난한 자의 심령을 잃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홍성개(한국성서선교회 증경 이사장) 목사가 성도들이 화합하고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회의 권면을, 김은호(연지교회) 목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줄 것을 축사하였다.

한국성서선교회 9 명 목사 안수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과 섬김 다하겠다'

목사 임직자들이 특송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강한 , 구재서 , 김영태 , 장미희 , 최은빛 , 이선경 , 이현우 , 홍성진 , 진기환 목사)

한국성서선교회(이사장 현희철 목사)의 2024년 목사임직식이 26일 본교 로고스홀에서 1부 예배와 2부 목사 안수(9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목사임직식은 현희철(중앙성서교회) 목사의 사회로 구재서 목사 등 9명이 평생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과 섬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나님과 내빈, 가족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였다. 임직자는 구재서, 김영태, 박강한, 이선경, 이현우, 장미희, 진기환, 최은빛, 홍성진 목사이며 전원 본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M.Div) 과정을 마쳤다. 9명의 임직자가 '은혜' 곡으로 특송을, 박강한 목사가 인사하였고 장미희 목사는 축도를 인도했다.

1부 예배에서 현희철 목사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시60:12)에서 목회는 "영적인 전쟁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의 전쟁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확신 갖고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김재명(월계성서교회)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이루기 위해 복음 그대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달라"며 권면해 주었다. 강우정 총장은 "요즘 말씀이 사라져가는 위기의 시대라며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전도에 힘써 나가는 것이 여러분을 부른 주님의 뜻이라고 축사하였다.

도서관 열람실 일립생활관 화장실 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지원으로 가능

겨울방학 기간 내내 캠퍼스 곳곳은 시설 개선으로 분주했다, 정문 옆 일립교훈비가 교내 잔디밭 입구로 이동됐고 도서관 열람실의 테이블과 소파가 산뜻한 디자인으로 모두 교체되었다. 학우들이 기거하는 일립생활관 2,3층 화장실과 샤워실 내부 전체까지 새롭게 단장,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이다.

정문 왼편 성은동산에 있던 일립 교훈비가 모리아관 입구 보행로 곁으로 옮겨 설치됐다. 정문에서 모리아관 초입으로 이어지는 공간 내 모든 차단봉과 주차 바리케이트도 모두 철거했고 차량 주차도 금지하여 시야까지 확 트였다.

도서관 3층 열람실 로비와 4층 열람실이 학우들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로 산뜻하게 변모했다. 페브릭 소재의 아담한 1인용 쇼파 (14개), 높은 등받이 쇼파 (3개) 가 마련되었고 당현천 창가를 따라 테이블 14셋트가 자리하였다. 테이블마다 조명등과 3구 콘센트가 설치 되었다. 4층 열람실에는 6인용 10셋트, 4인용 테이블 2셋트가 자리한다. 2인용 테이블은 흡음 차단막이 설치돼 소음을 막아 주고 있다. 도서관 집기 교체에는 6천 8백여만 원이 투입되었다.

일립생활관은 화장실 내 변기 전체와 수전 시설은 물론 샤워부스와 내부 타일도 모두 바꾸었다. 비용은 5천 4백여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도서관과 일립생활관 시설개선작업은 2년 차를 맞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가능하게되었다.

최수일 장로 , 장순복 권사 부부 5 천만 원 후원

지난해 9 월에도 거금 1 억 원 후원

최수일 장로, 장순복 권사 부부가 우리 대학 생활관 시설 개선에 사용해 달라며 발전기금 5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혼탁이 심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고 실천해 주는 귀한 대학이라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에도 생활관(2000년 준공)의 낡은 시설과 가구 교체에 사용해 달라며 거금 1억 원을 후원한 바 있다.

(주) 제네시스매니지먼트 이유재 대표 1 천만 원 후원

(주)제네시스매니지먼트 이유재 대표가 사회복지학과 장학기금에 사용해 달라며 1천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이 대표는 예수님의 이웃사랑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해가게 될 사복학과 학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주)제네시스매니지먼트는 환경및 에너지 관련 분야 중심으로 사모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견실한 업체이다.

강우정 총장 이임사

과분한 대접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총장의 직분을 내려 놓습니다.

하나님께 특히 감사한 것은 실은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은 다 가리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제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떠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저와 함께 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설팀장 곽규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실을 다니면서 칠판을 닦는 일, 책걸상의 오와 열을 맞추는 일, 불이 안 들어오는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 깨진 유리창을 바꾸는 일, 시간 맞지 않는 시계를 갈아 치우는 일 따위였습니다. 특히 비 새는 곳 막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는 우리 학우들이 등교하여 교실에 들어섰을 때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 주자는 것이었지요. 팀장님은 새벽 6시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곽 팀장님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우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일에는 하찮은 일도 작은 일도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 역정을 셋으로 나눈다면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잠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갈 때까지의 27년,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 이민 생활 시기 33년,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보낸 지난 24년의 시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고만장했던 1기와 가장 초라했던 2기가 있고 가장 보람스러웠던 3기가 있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와 함께 했던 지난 24년이 가장 보람찼고 행복하였습니다. 매일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돌이켜 보면 1, 2기의 제 인생은 제 3기를 위해 준비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그의 계획하심이었고 그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앞서 가시면서 모든 싸움을 다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떠날 때 따로 이임식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이임식은 아무리 사양해도 떠나는 사람을 향해 별로 한 것이 없어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여야 할 텐데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보탬이 된 것보다 이 학교가 나에게 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분한 대접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지난 24년을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30초만 여러분의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그동안 그 긴긴 시간을 작은 방에 갇혀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을 싸서 주고, 낮에 잠시 들를 나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면서 보낸 그 긴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참고 기다려 준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 제69회 학위수여식 (2024년 2월 20일)에서 행한 고별사

컬 럼

교수 | 학생

장인순 교수(간호학과)

이제 봄이 와요
봄이 주는 따뜻한 색의 위로를 기대하며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색감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

봄이 오면 따뜻한 기운과 함께 화창해짐을 느낍니다 .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 저는 말할 수 없이 그 높고 맑은 하늘만큼 넓어진 마음으로 , 다시 깨끗해지는 것 같답니다 .

학교에 벚꽃이 필 무렵에는 아침 출근할 때마다 밤새 천사가 와서 요술방망이를 얼마나 흔들었을까 ? 하고 기대하며 온답니다 . 나무들에게 뭐라 속삭이며 마술을 걸었을지 , 아름다운 분홍색들이 온 캠퍼스를 덮을 때는 정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탄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큰 소리로 마음을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 특히 밤에 캠퍼스도 누려보세요 . 은은한 조명 빛 아래에 드러나는 캠퍼스 , 함께 빛나는 벚꽃들도 한번 보세요 . 정말 행복은 이런 것이랍니다 . 개나리 , 목련 , 진달래 , 가끔 정신없이 같이 피는 장미까지도 모두 모두 삶에 활력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끌고 있음을 느낍니다 . 이제 정말 봄이 와요 .

봄이 주는 위로를 누리세요 .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다양한 색감을 그 안에 에너지와 희망까지를 , 반복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들을 느껴보세요 . 그리고 또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때론 정리되지 못하는 삶의 여러 모습이 시간에 따라 정리되고 서서히 질서를 되찾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 자연이 보여주는 다양한 변화와 찬란한 색상이 주는 따뜻한 위로까지 경험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

혹시 푸르른 바다를 언제쯤 보셨나요 ? 최근이 아니더라도 기억하시는지요 ?

파란 하늘과 출렁이는 파란 물결들 , 힘찬 기운을 받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 그런데 봄을 넘어 벌써 여름을 기다리는 것은 왜일까요 ?

김병윤(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

「My safe space」

우리는 때때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곤 합니다 . 어떠한 이유이든지 솔직해지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각자의 가면을 쓰게 될 때면 예의일 수도 있고 , 배려일 수도 있으며 ,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전략일 수도 있죠 .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감정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 마치 감정 인형이 되어버린 것처럼 예민해져 있는 자신을 마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에 인제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

Who I am. 수많은 페르소나 中 나를 가장 나답게 정의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 적응되어서인지 꺼내 보기에 껄끄러운 내면을 회피하기에 바빴으며 숨기기에 급급했던 기억도 이따금 떠오릅니다 .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조심스레 여쭙고 싶어요 . 솔직해지고 싶지만 , 용기가 나지 않아서 , 꺼내어 본 모습이 현실의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겁도 나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 공간 ' 에서 스스로를 돌아본 경험 덕분에 이전보다 주체적이고 조금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 마치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을 용기 내어 소꿉친구에게 털어놨을 때 생기는 안정감 같은 마음처럼요 .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 공간은 얼마나 쉽게 우리를 바꾸는지 . 소중한 공간에서 보내는 농도가 짙어질수록 이면의 나를 소홀히 여겨온 지난날들이 아른거립니다 .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반복하는 장소라는 익숙함 때문일까요 ?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나요 .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오늘을 되돌아보는 넉넉함과 내일을 기약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행복했습니다

이번 미국 집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담임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집회였다는 겁니다. 1987년 목사 안수 받고 부 교역자 생활을 시작으로 1993년 10월부터 오늘까지 31년간 담임 목회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며 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였습니다. 햇수로 6년, 17년, 마지막 7년과 함께 목양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목회 초기 한 교회에서 목양하다가 원로가 되고 싶은 간절함은 이루지 못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뭐가 행복했느냐고 묻는다면 항상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설교자로 살 수 있게 돼 행복했습니다. 아쉬운 건 목양의 꽃인 설교 강단이 정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강단이 없어지는 게 목회자에게 힘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강단이 없는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이번 미국 집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샌디에이고 한빛교회에서 한 주간은 매일 밤 두 시간씩 로마서를 강해했습니다. 이곳 날씨가 미국에서 최고라는데, 머문 한 주간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은혜의 비를 한빛교회 강단에서 경험했습니다. 로마서가 청중의 귀에 건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내리는 비처럼 제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가 전달되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주일 설교 전, 담임 목회자로 마지막 해외 설교라는 소개와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복음을 심어주신 감격스러웠던 시간이 어둠을 물리치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처럼 마음을 밝혀 줬습니다. 그날도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오늘 목양실 컬럼과 주일 설교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나 이미 주어진 것만으로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노라"(행20:22) 고백했습니다. 저도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다만 24년간 총장으로 임했던 분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에 2층으로 오를 준비가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국성서대학의 어머니 교회로써 학교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16

경칩

윤보영

후훗
개구리, 벌레, 새싹???
어서 와.

난 이미 오래전에
내 안에 봄을 만들었고
꽃까지 피워가며 기다렸거든.

다들 애썼다
토닥
토닥!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832812&memberNo=16274759&vType=VERTICAL

3월은 용솟음의 계절. 애써 견뎠던 시간을 껑충 뛰어오르게 하고 날아오르게 하고 샘솟게 하는 도약이다.

3월은 어우러짐의 계절. 두터운 씨앗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와 노랑 분홍 하양 파랑 산천을 물들이는 조화로움이다.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두었던 내 안의 봄, '다들 애썼다' 토닥이는 3월의 따뜻한 손길!

이제, 우리가 봄을 물들일 차례다!

호안 미로 (Joan Miro 1893-1983)

여자 새 별자리들 (Woman, Bird, Constellations) 1974

https://www.pinterest.com/pin/woman-bird-constellations-1974-joan-miro--423408802441006231/

호안 미로의 그림입니다 .

스페인이 자랑하는 미로의 그림을 처음 대하는 이들은 이것도 그림인가 ? 하게 만듭니다 . 초현실주의자인 미로는 고대 동굴 벽화에서 그려졌을 듯한 상용문자 같은 기호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 그것도 아직 세상 때가 덜 묻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필라에서 그의 그림을 봤을 때 어린 시절 흰 종이에 탱크와 포를 그리고 놀았던 반공 시대의 조각난 유물들이 생각납니다 .

이 그림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날씨의 복을 받았다는 샌디에고 발보아 파크에 있는 미술관에서 봤습니다 . 성경책 중의 한 책을 강해해 달라는 교회의 요청에 로마서로 정하고 간 도시에서 또 다른 로마서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 설교자는 본문을 읽고 흘러가는 주제의 흐름에서 앞뒤 장의 연관 관계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숨겨진 의미를 분석한 뒤에 아래가 아닌 위에서 주어지는 빛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미로의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그 빛을 필요로 합니다 .

미술관 2 층에서 만난 여자 , 새 , 그리고 별자리 그림 속에서 누가 여자이고 새이며 별은 어디 있는지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 느낌상 검은 두 선이 여자인 것 같고 세 점으로 된 게 별자리 같아 보입니다 . 여자의 발아래 걸쳐 있는 검은 선 안에 갇힌 붉은색이 새 ? 아니면 여자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짙은 녹색이 새 일까 구분이 안 됩니다 . 기호 분석이 상상력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본문 분석 훈련을 받은 습관이 그림 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 미로에게 여자는 생물학적 의미보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궁을 가진 영적 어미의 의미가 있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사명은 새에게 준 것입니다 . 다만 별자리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나 누군가를 인도했던 별이라면 인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미로가 준 화두는 본질이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 간결성에 생명이 있고 단순함이 어린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졸업반 유아가 원장님으로부터 졸업장을 수여받고 있다 .

대학어린이집

더 큰 세상을 향해

21일, 로고스홀에서 졸업 예배를 진행하였다. 만 5세반 졸업생 23명과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졸업생 우현성의 아버지 우희영 목사가 유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양분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해 달라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예배 후에는 졸업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만 4세 동생들이 이별의 아쉬운 마음을 담아 노래와 선물을 전하였다. 이번 졸업 예배는 졸업하는 유아들과 가정을 축하하는 시간이었고 믿지 않는 가정까지 말씀을 듣고 새겨보는 복된 만남의 자리였다. 앞으로도 우리 교직원들은 졸업생들의 앞길을 기도로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은혜반 권효진 교사]

복지관에서 꿈자람행복마켓 바자회가 진행되는 모습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꿈자람행복나눔마켓

2일, 월계동 어린이집 5개 기관(사랑샘어린이집, 조은어린이집, 빛나래어린이집, 별초롱어린이집, 리틀나라어린이집)과 연합으로 '꿈자람행복나눔마켓'을 개최하였다. 바자회 용품은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생활필수품을 기증하여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나눔문화') 성격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 직접 조리한 음식(떡볶이, 붕어빵, 어묵, 김밥, 샌드위치)을 판매, 행사가 장터처럼 풍성해졌다.

당일 70명의 영유아 가족이 참여하였고 수입금은 818,000원을 거뒀다. 수익금 전액은 월계동 영유아 실내 놀이공간 '꿈자람'의 운영기금으로 기부했다. 이는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잇감 구입과 놀이 행사 진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팀 김소희 사회복지사]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악기를 배우고 있는 유아들

꿈빛어린이집

전통 놀이 한마당

설을 앞두고 영유아가 모두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은 설날 먹는 음식과 새해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배하기에 참여했다. 선생님이 덕담을 하였고 친구들은 서로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였다.

이후 전통놀이의 특징과 놀이법을 듣고 짚신 던지기, 막된장 만들기와 놀잇감 만들기, 사물놀이, 투호놀이, 비석치기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까지 신나게 즐겼다. 전통악기 연주로 예술에 대한 감성을 배우면서 고유의 음악을 몸으로 체험하였다. 윷놀이의 놀이판도 직접 만들며 윷에 색과 모양을 그려 넣는 등 나만의 놀이판이 완성되자 크게 환호하였다. [목련반 정소윤 교사]

담임목사 이 · 취임식을 마친 내빈들이 함께 하였다 .

성서대학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

18일,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마16:18)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가슴과 비전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전했다.

반세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언제라도 한걸음에 달려 올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이임하는 최정권 목사는 귀한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주의 부름 따라 교회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출발하게 될 여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보살핌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한다. [강성훈 목사]

어르신에게 세배 예절을 익히고 있는 유아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설날 행사

7일, 설날을 앞두고 열린 어린이집 행사로 진행하였다. 알록달록 고운 한복을 입은 영유아들이 설날을 맞아 어르신께 드리는 세배 예절을 배우고 아름다운 의복을 비교하는 자리도 가졌다.

푸른반과 맑은반 영유아들은 각 반 교실에 모여 자개 거울과 오색 청사초롱 만들기를 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이 반영된 소품을 통해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와 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자리가 됐다. 할머니께 세배 드리고 뜻깊은 덕담도 들으며 웃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맑은반 유아의 할머니가 "한복 입은 아이들이 너무 맑고 예쁘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며 흡족한 소감을 전해 주었다. [푸른반 이진아 교사]

장애아지원사업 협약식을 마친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들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지원사업 협약식

16일,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장애아지원사업 설명회 및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2024년 진행될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아 담당 교사 지원,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 소개와 역할과 전망 등이 논의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영유아 보육 최전방의 원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장애통합 보육을 향한 공동의 임무 수행을 위해 정보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도 되었다. 이번 협약식으로 장애통합보육의 전문성 향상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역량 강화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관내 보육 현장에 질 높은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의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김선화 특수교사]

온누리반 유아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함께 하였다 .

상계5동어린이집

온누리반 졸업식

23일, 빛가온교회에서 온누리반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졸업의 주인공 14명이 그동안 정든 어린이집을 떠나 새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졸업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준 교사의 곁을 이제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졸업식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가 더해졌다. 만4세 동생반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마음 담은 송사와 노래, 선물이 전해져 졸업의 의미를 더욱 빛내 주었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과 교사를 향해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하였다.

어린이집의 소중한 추억을 발판으로 넓은 배움의 장, 초등학교에서 보람차고 의젓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초록풀잎반 강혜진 교사]

졸업식에 참석한 유아들의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

늘사랑어린이집

졸업 이야기

23일, 제8회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가족과 함께한 졸업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공연까지 순조롭게 이어졌다. 특히, 졸업생들의 '바나나차차' 악기 연주는 아이들의 성장 모습과 대견함을 전하였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혀온 정든 둥지를 떠나는 이별이 담긴 송사에 아쉬움을 달래며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한 학부모는 "졸업식에 참여해 축하해 줄 수 있어 좋았고 순서도 인상적이었다" 며 한 해 동안 수고해 준 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졸업식 후 수료파티는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며 자신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형님이 된 기분을 나누어 보았다. [신나는반 최수지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1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729만원(운영)
(주)제네시스매니지먼트	1,000만원(장학)
강우정, 강진(총장)	535만원(운영)
경성교회(박종걸 목사)	250만원(장학)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동서환경(주)(김태봉 대표)	100만원(건축)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남성휘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신미선 엄보영 윤영원 최규봉 최선경 하진우
2구좌 이정목 임수정
5구좌 월계지역아동센터 세빛교회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반우형 양승원 윤명섭
2구좌 김장호 전영호
5구좌 최선희
10구좌 김태규 배진형 안정선 유정선 장인순 조혜경 최육열 김정원(신)
15구좌 강규성 김은호
83.3구좌 (주)제네시스매니지먼트

부설기관

3구좌 문유나
5구좌 신영자

성서선교회

5구좌 월계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12구좌 황인돈.김순자

일 반

1구좌 송수용

단체 및 기관

3구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10구좌 성복중앙교회 평안교회(신병수)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이아람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애솔 강옥경 강은해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무엘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화석 나선영 나유나 남범수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마효정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수진 박수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채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이해성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윤미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황예린 강해든이 설에스더 /열매맺는교회 황보혜영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강신용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동원 김명희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지원 류충열 박문홍 박상수 박재송 박주영 박혜숙 성용제 소경숙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심규리 안선례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서희 윤영원 이기주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한별 이현우 임수경 임은희 임주영 장은경 장익봉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조은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추하은 탁명화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황형록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김세련 김윤정 김재임 김지애 민승철 민찬양 박기혁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양연선 우종엽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최선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월계지역아동센터 /좋은교회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동완 김준오 김 진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이유나 이지은 최경환 최송희 /가학교회/벧엘성서동우회 /생명의빛교회/세빛교회 /화도드림교회
6만원 장영훈 정동주
7만원 인성은
10만원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진경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함평대동교회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임수정
15만원 박빛나
18만원 온공현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권명희 기병문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은주 선유정 양은성 이동기 이성란 이성령 이연신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곽은혜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애선 김창환 김형태 박명규 박은영 송세희 연성희 오명이 이미영 이선경 이승찬 이은영 이혜봉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정해숙 조복임 조율이 지은영 천광호 최경애 최장현 황미숙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송의택 최정규
5만원 권오길 김명자 김성안 안종헌 이재현
10만원 김승례 박은정
30만원 박지홍

기부자 명단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종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윤명섭 이문자 이은영 이정은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하늘사랑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구자람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윤혜진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6만원 권순범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덕현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승옥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00만원 홍설자

535만원 강우정.강 진

1,000만원 (주)제네시스매니지먼트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임재택 최영운 호한나

2만원 진양희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유정현 장윤정

4만원 박미선

5만원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6만원 장나혜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35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5천원 박용숙

9천원 곽규상 오경모 이 천 이향원 정갑순 황성모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1만8천원 고경숙 고나경 고미숙 권정화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A 김배열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A 김성진B 김성철 김수진 김애숙 김유미 김은미 김일선A 김일선B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혜련 김희자 김희현 박상희A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방미경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안봉숙 오종철 윤재필 이로선 이무현 이봉호 이상록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임용택 장근문 장진희 장혜린 장홍림 정예진 정희선 조영희 최인숙 하은희 한성실

2만7천원 박은경

3만6천원 강미경 강유진 김겸일 김민자 김인영 김인자 김춘환 김향순 박선하 박인숙 박주형 반해빈 반해성 무 명 양태환 용정자 유중엽 윤도진 이경신 이관영 이승림 이주현 전옥순 정나영 정선희 조병하 최영태 최용석 허진순 황시온

4만5천원 권경만 김웅기 김원태 유형창

5만4천원 김유미A 반세호 송재철 이숙영 최선희

6만7천원 박태수

7만2천원 김순옥 노봉환 박은유 이윤봉 황서린

9만원 강성훈 길용희 박세건 최강희 최대만 최순남 한진호

10만8천원 김현석

13만5천원 박온오 이은실

18만원 권태완 최정권

1,729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윤무표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섬김교회 /일동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어린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박우람 한지화

3만원 임윤창/어린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옥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10만원 김용철 송인숙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5만원 이혜선

22만원 황인돈.김순자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25만원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37만원 현희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효숙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헌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서민석 서병준 서성원 이일신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평화의교회/행복한교회

3만원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4만원 정형채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서미혜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3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무진인터내셔날 /주님손교회 /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 /본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 /상일교회/예일에드컬 /행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두암산업(주)/미사목민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병수)

20만원 (주)소원기건/가성교회 /만나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100만원 동서환경(주)

250만원 경성교회

소계(20240121~20240220) 67,745,640

누계(20230301~20240220) 1,002,576,873

한국성서대학교 2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2,500,000원)

경성교회	2,5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22구좌, 연간 납입 예상액 2,640,000원)

10구좌 박은정(동문) / 2구좌 박은영(재학생), 최창현(재학생), 오명이 (동문), 이혜영 (동문), 장은정 (동문), 최윤준 (동문)

학교 및 학교법인 포함 발전 후원금 총 누계 (2023.3.1~2024.2.29) 1,079,089,370원